

이예나 기자

트럼프 당선 공신들, 침묵하는 다수 ‘백인들’

지난 11월 8일 대통령 선거 직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막판 선거전략은 이른바 ‘침묵하고 있는 다수(Silent Majority)’를 향한 것이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는 여론조사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당시 거의 모든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 여론조사에 목소리를 내지 않은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며 그들이 자신을 찍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마지막 선거비디오로 ‘우리 모두는 ‘침묵하는 다수’라며 정치인, 엘리트, 세계주의자(Globalist), 부패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되찾아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그리고 이 ‘침묵하는 다수’들의 지지로 트럼프는 대선 승리라는 ‘과관’을 일으켰다.

침묵하는 다수는 누구일까? 이번 대선 출구조사를 분석하면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제조업, 탄광 등에서 종사하는 블루칼라(Blue Collar) 노동자이며 신앙적으로 복음적 기독교인인 ‘백인’들이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대로 많은 백인들의 표를 받았다. 백인들 중 58%가 트럼프를 찍었고 클린턴을 찍은 백인은 37%로 차이가 21%로 역대 최대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대선에서 백인 표 중 20%차이로 승리했고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역시 20% 차이로 백인들의 표를 많이 받았지만 패배했다.

2012년 대선에서 미트 롬니가 백인들의 많은 표를 얻고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당시 공화당에서는

백인표만 갖고는 안된다며 인종적으로 소수인 흑인, 라티노, 아시아계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유권자에서 백인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줄자 이 주장은 설득력이 컸다. 백인이 미국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4년 86%, 2012년 72%, 이번 2016년에는 70%다.

당시 공화당은 소수 인종 담당팀을 구성하고 흑인, 라티노,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워싱턴 DC로 초대해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다가섰다.

이런 상황에서 라티노가 대다수인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하고 불법 이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트럼프가 내자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라티노, 아시아계의 표를 얻지 못하겠다고 남은 것은 트럼프 패배라는 것이 선거 전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백인들, 특히,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플로리다 등 부동(swing)주에서 많은 백인들이 트럼프를 찍으면서 이들 주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결국 이 승리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면서 백인들 표만 갖고는 안된다는 예상은 빗나갔다.

오하이오는 백인이 전체 유권자의 62%인데 트럼프는 이들 중 27% 차이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승리했다. 플로리다에서도 백인이 전체 유권자의 62%인데 트럼프는 이들 가운데 64%의 지지를 받으며 이겼다.

이 부동주들은 제조업 공장들이 문을 닫아 녹슬어 있어 ‘러스트(Rust) 벨트’로

불리는 곳으로 2012년 대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것은 자유무역으로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제조업, 석탄업 등에서 일하는 시골 지역의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유효했다는 것이 유력한 분석이다.

오하이오의 한 시골의 석탄개발 지역은 2012년 8% 차이로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47% 차이로 트럼프가 승리했고 펜실베이니아의 한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5% 차이로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19% 차이로 트럼프가 이긴 것이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주로 교육수준이 낮은 백인들로 출구조사에 따르면 최종학력이 고졸, 전문대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를 찍었다.

반면, 라티노,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가 기대만큼 많지 않았던 것이 클린턴이 패배한 이유다. 트럼프는 대선 중 과거 여성에 대해 성추행 발언을 한 비디아가 공개되고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증언이 나오면서 전체 유권자의 52%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트럼프를 찍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컸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여성들 42%가 트럼프를 찍으면서 클린턴은 12% 차이로 많은 여성표를 얻었다. 이것은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를 이길 때 여성표 가운데 11% 차이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 중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언급하는 등의 입장으로 라티노



트럼프 지지자들의 모습

케이아메리칸포스트

들이 대거 클린턴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도 맞지 않았다. 29% 라티노들은 트럼프를 찍었는데 이것은 롬니가 2012년 대선에서 27%의 라티노 표를 얻은 것보다 많은 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71%의 라티노 표를 받았는데 이번에 클린턴은 65%를 얻었다.

트럼프는 3번 결혼하고 카지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번 대선에서 공개된 성추행 언급 비디오 등으로 전체 유권자의 26%를 차지하는 복음주의(Evangelical) 백인 기독교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인 81%가 도널드 트럼프를 찍은 것이다.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인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왔는데 이번에 81%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트럼프를 찍은 것은 지난 2004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얻었던 78%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다.

트럼프에 대한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인들의 목표는 낙태, 종교의 자유 등에서 미국사회의 방향을 정할 연방대법관 임명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복음주의의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은 차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안토니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현재 연방대법관은 한자리가 공석이다. 나머지 8명의 연방대법관은 진보 4 대 보수 4로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보수 혹은 진보로 가느냐가 달려있었다. 현재 연방대법관 중 3명이 83세, 80세, 78세로 고령이라 차기 대통령은 이들의 후임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가운데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21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발표했다는데 모두가 낙태를 반대하고 종교의 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깨닫게 하는 성경구절 10가지

영국 기독교신문 크리스천투데이의 칼럼니스트 캐리 로지는 지난 24일 ‘추수감사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키는 성경구절 10가지’라는 제목의 기고 글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돌리자”고 강조했다.

지난 24일은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축하한 날이다.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칠면조 요리를 즐기고 가족 상봉의 시간을 가진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순례자들 교부들이 추수의

축복과 전년도에 대한 감사를 드린 날로 시작되었다.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11월 넷째 주 일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했다.

사실, ‘감사’는 성경적 원칙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왔다. 또한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쉽게 잊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상기시키는 성경구절 10가지다.

-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시107:1)
-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5:20)

- 골로새서 3장 16-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3:16-17)

-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

- 시편 95편 2-3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시95:2-3)

-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시100:4)

- 고린도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전9:11)

-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시9:1)

장소피아 기자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홈페이지 참여방법!

-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 모바일앱 mykids.vw.or.kr로 접속해주세요.

2인원 후원물품 즉시발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나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전지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의 현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1회 아동현재발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 5만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학습, 교육 및 태움에 혜택을 줍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배고픔을 넘어 꿈을 키우고 한 마을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어떻게 살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며”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제가 2008년 1월 13일 28년 동안 목회하던 강변교회에서 은퇴한 후 그 다음 주일부터 지난 8년 11개월 동안 주로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매 주일 방문하며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개포동 사랑의 빛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신상문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냐고 묻곤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정성껏 설교준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상문 목사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설교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설교 제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100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라고 시를 읊었습니다. 시편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을 26절에서 매절마다 26번 반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절과 13절과 26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시 136:1,13,26).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중에

서도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예수님께서서는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11:41).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11:25).

사도 바울은 환경에 상관없이 가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거나 기도를 할 때마다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1:4).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살전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5:57).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2:14).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9:15).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꾀박자요 포행자이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1:12,13). “사망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15:55,57).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5:4).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

중하라”(엡5:20,21).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3:15).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궁핍과 꾀박은 물론 자기의 죄성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꾀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한 이니라”(고후12: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7:2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매력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대신 근심 걱정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생깁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만이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불평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이웃과 사회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열린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웃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5:4)라고 권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할 때에 가슴이 점점 부풀어 올라” “눈부신 햇살의 아침과 황홀한 노을 빛 저녁과 찬란히 빛나는 별들의 밤하늘” “모든 것을 돌이켜 보며 곰곰이 생각할 때도 주님께 모두 감사한 것뿐” “나 항상 이해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교회와 형제들 숨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모두 모두 모두 주님 주신 선물들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 모두 감사하며 주께 찬양드리세” “우리 모두 모두 즐겁게 손뼉 치면서 모두 신나게 춤도 추면서 아주 큰 소리로 주께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감사해야 할 조목들 다섯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즉 신성을 지닌 사람으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생명을 나에게 전수해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생명을 만들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만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시139:14). 다윗은 자기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시109:4). 다윗은 자기를 보고 느끼면서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19:1). 다윗은 자기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천국 소망”의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23:6). 우

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감사해야 할 조목들 중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신성을 지닌 사람으로 즉 “믿음”과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찬양”과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위와 입과 식욕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고 싶을 때 어디든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다리와 발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며 기도하고 싶을 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고 정성껏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이시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

고 즐거운 하루 하루”(찬305).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나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1:15).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인해서 평생토록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1:12).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까지 맡겨 주신 일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주 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셋째로,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인데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파스함이 있습니다. 교회의 품 안에 들어오면 사죄의 은혜와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 사장·발행인 김광수 | 일반편집장 장세규 | 교계편집장 김규진 |
|--|---|-----------|
|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 | |
|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 광고 및 대표구좌 SC은행 구독문의 070-4352-2480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 |
|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영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아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글: 김지아 일러스트: 김지아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물물였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혼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이스터 이효재**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38-7858 **이마주**

치유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격려와 용기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시84:4).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전 즉 교회를 지어서 드리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대하7:14-16). 이 땅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고 계시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찬24). 저는 고등학생일 때 대구 주암산에서 열린 김치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참

석했는데 어느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다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라는 가사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고 울고 또 울고 또 온 일이 있었습니다.

넷째로, 자연 만물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부신 햇살의 아침과 황홀한 노을 빛 저녁과 찬란히 빛나는 별들의 밤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시136:5-9). 저는 산을 바라보면 그렇

게 기분이 좋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흘러 나옵니다. 여름 산은 여름 산 대로 좋고 겨울 산은 겨울 산 대로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3년 여름 제가 알프스 산의 절경에 도착되어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호수를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에 펼쳐지는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과 정신을 몽땅 빼앗기고 있었다. 몽트뢰라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알프스의 산속을 거슬러 올라갔다. 계속 펼쳐지는 경치의 아름다움에 나는 완전히 취되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깨끗하고 뽀뽀하게 높이 솟아 오른 침엽수들의 부요함과 벼랑 밑으로 부서지며 흘러내리는 폭포수들의 강직함과 깨끗함! 새와란 잔디 언덕 위에 띄엄띄엄 그려져 있는 검붉은 색깔의 나무 집들과 그 사이에서 한가로움게 풀을 뜯는 젖소들의 평화로운 모습! 나는 점점 정신을 잃고 있었다. 아름다움이 지나치니 가슴에 탄식과 아픔을 느낀다.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영혼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은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찬33장).

다섯째로, 고난과 역경을 인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해서도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옴은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옴

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테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 1:20-22).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일을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옥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찬미하며 감사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행16:25).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함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12:10).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리스트를 길게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자기와 같은 핍박자와 포행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 너무나 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갇힌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

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 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랴 내가 광 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고후11:23-33). 사실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것보다 다 귀중하고 보배롭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반 집사와 폴리랍 감독과 토마스 선교사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극심한 질병의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너무나 귀중하고 아름답게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

송명희 시인은 제 사무실 근처에 살고 있는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몸에서 지니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온 몸으로 소리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 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감사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패니 크로스비는 평생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패니 크로스비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찬송가를 쓴 찬송가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패니 크로비는 평생 맹인으로 95세까지 수 많은 찬송시를 쓰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패니 크로스비가 92

회 생일을 맞았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패니 크로스비의 가슴과 찬송가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패니 크로스비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천국에 이르러 그의 눈으로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예쁘고 장래가 촉망되던 소녀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자신도 모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보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전신 마비로 인한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 주는 장애인들의 천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 미국 핏튼 대학에서 39살 난 조니 에릭슨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나누었을 때 저는 그녀에게서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릭슨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간증하곤 했습니다.

에릭슨은 그의 자서전 ‘조니’에서 “지금의 불구의 삶을 어느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1996년 7월 암스텔담에서 조니 에릭슨을 다시 만나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천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몸에서 지니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

이라 하신지라 이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12:7-10)

한경직 목사님도 평생 폐 결핵 등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을 몸에서 지니고 약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런 질병과 약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닮은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느 해 본인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살전5:16-18 말씀을 천히 써서 자기의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점시에 복사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는데 저도 그 선물을 받아서 지금도 제 사무실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던 말씀이 바로 살전 5:16-18 말씀이었습

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귀중하고 더 보배롭고 더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만듭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와 같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기도에 감사하므로 깨어 있으라”(골4:2). 감사는 우리들의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기쁜 종제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근심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모습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상문 목사님과 사랑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고객센터 1588-1900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www.epostbank.go.kr